

보험

산업이슈

2021. 03. 16

실손보험, 이러다가 천지사방 다 태울라

News

2020년 실손보험 손해율, 호흡계/감염성 질환 감소가 실렸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20년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5%로 전년대비 4.1%p 개선되었지만, 영업수지는 -2,3조원으로 전년보다 7백억 원 개선되는데 그쳤다. 상위 5개사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8.3%로 전년의 20.7%보다 낮아졌지만, 호흡계/감염성 질환을 제외한 경우 보험금 증가율은 11.8%로 나타났다.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거론되는 백내장수술 지급보험금은 1,393억원 증가해 보험금증가금액의 25%에 해당되었다.

Com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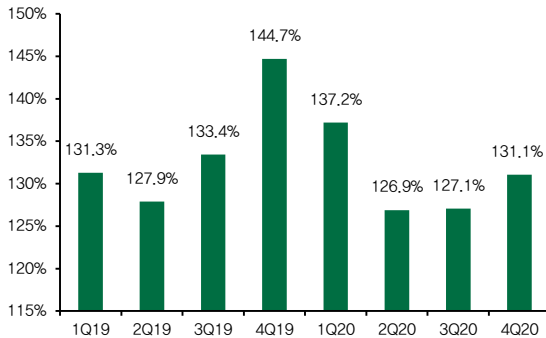
실손보험, 적자 당분간 확대 불가피: 2021년초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2020년보다 다소 높아졌고, 4월부터 구실손보험료는 평균 18% 내외 인상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 수준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보험료 인상으로는 적자를 축소시키기도 어렵다. 보험료 인상이 계속되어 연간 실손보험료 증가분이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130% 수준 손해율이 유지된다면 업계 전체로 연간 3천억원의 적자가 증가하게 된다. 그저 적자 확대만을 막기 위해 2020년에 나타난 것과 같이 4%p 수준의 손해율 개선이 필요하다.

과잉진료와 코로나19 영향 확연하게 나타난다: 2020년 손해율 개선에는 코로나19 영향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인데, 데이터에서 확인된다. 1) 1Q20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5.9%p 상승했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손해율이 전년동기 대비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도표 1, 2] 참조) 2) 2020년중 대부분 질환의 보험금이 평균 10% 증가했는데, 호흡계/감염성 질환 보험금은 21%/1,213억원 감소했다. 호흡계/감염성질환 보험금도 2019년까지는 증가했었는데, 추세가 바뀐 것이다. (도표 3] 참조) 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스크착용 및 손씻기 영향으로 독감, 장염 등의 환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과잉진료 이슈도 확인된다.** 3) 2019년 기준 보험금지급액의 4%에 불과한 백내장수술 보험금이 2020년 1,393억원 증가해 전체 보험금 증가의 25%를 차지했다. (도표 3, 4] 참조) 4) 근골격계 질환 보험금이 4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데,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전체 건강보험 의료기관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9%에 불과하다.

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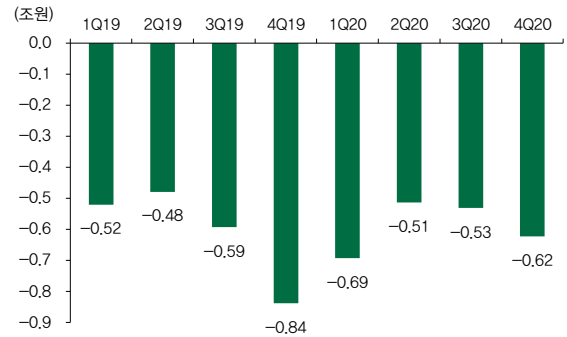
구실손 상품의 역선택 정밀타격 필요: 감독당국의 이해와 노력으로 실손보험료 인상률도 높아졌고 역선택 방지장치를 보완한 4세대 실손이 7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보험금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실손보험이 유지될 수도 없고 일부 과잉진료가 건강보험의 틀마저 흔드는 Wag-the-dog 현상이 우려된다. 의료 및 보험질서 유지에 부담이 되고 있는 과거 판매된 실손보험 상품의 역선택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손보사들의 경우 2021년에는 사업비 개선으로 손익이 개선되겠지만 보험료 인상이 아직 충분히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실손보험의 손실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도표 1. 손보업계 실손보험 손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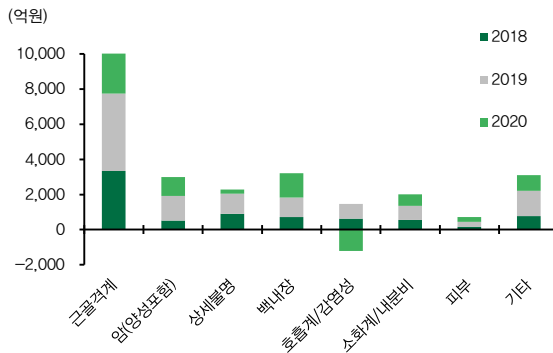
자료: 금감원 및 업계자료, DB금융투자

도표 2. 손보업계 실손보험 영업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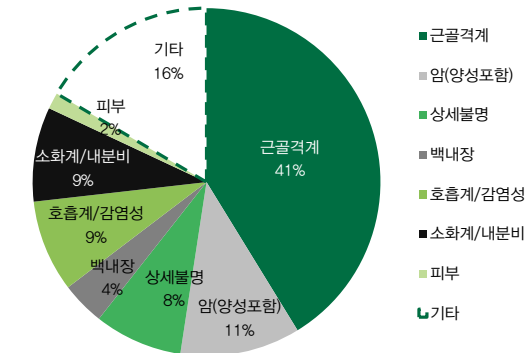
자료: 금감원 및 업계자료, DB금융투자

도표 3. 5대 손보사 합산 기준, 질환별 실손보험금 증가금액



자료: 손해보험업계(아시아경제 보도), DB금융투자

도표 4. 5대 손보사 합산 기준 2019 질환별 실손보험금 비중



자료: 손해보험업계(아시아경제 보도), DB금융투자

Compliance Notice

- 자료 발간일 현재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한 종목들의 IPO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내용은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발행주식수 변동 시 목표주가와 괴리율은 수정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1년간 투자이전 비율 (2021-01-06 기준) - 매수(89.6%) 중립(10.4%) 매도(0.0%)

기업 투자이전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Buy: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Hold: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perform: 초과 상승률 -10%p 미만

업종 투자이전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Ov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Neutral: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미만